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천태종총무원장상)

향광행(서울시 수유3동)

그런데 이상스럽게 아이 중 하나가 아프면 다 따라서 아팠습니다. 큰 아이가 눈병이 오더니만 세 자매가 눈병이 와서 매일 안과에 가서 1만2500원 씩 내며 치료를 받았습니...

원에는 2주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큰 아이 윤영이가 벌써 속에서 살아서인지 지하방 습한 곳에 살아서인지 그들의 기관지 천식으로 온 식구가 잠을 못 잤습니...

세 자매의 부처님 <하>

손가락을 뚫어 찌어 부처수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잡지 못하고 연필도 제대로 쥐지 못할 때는 막 눈물이 났습니...

정은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부처님 세 자매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 가정의 웃음꽃이요, 부처님과 같기에 '세 자매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이들 부처님 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꺾꺾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문의 전화: (02)722-4162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눈병·피부병에 수두·천식까지 겹쳐
아이들 병치레에 집안은 '난리통'
기도하며 마음 안정·성적 쑥쑥 올라
세 자매는 가정에 기쁨 주는 '웃음 꽃'

아이 윤영은 72점이 넘고 둘째 서임은 국어도 산수도 100점, 율백을 맞았습니. 남들은 과외다 학원이다 수없이 배우고 가르치는데 과외는 염두도 못내고 학원은 문앞에도 못가본 아이들이 두 과목 다...

지 않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이제 제 팔팔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봉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맹아학교에 일하러 다닐 때...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놀라운 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20점, 30점 겨우 받던 아이들이 그반에서 1등이 되었다고 말습니.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부처님과 우리 세 자매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모셔 올 때 모두 보육원으로 보내라는 것을 뜻하게 이 한마음으로 버티 온 것이 정말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

이 할미와 틈틈이 공부하고 절에 따라 다니고 '관세음보살님' 염불만 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두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 그렇게 기쁨 수가 없습니. 부처님의 기쁨이 아니고 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부처님을 믿고 이 한마음에 맡기고 살아왔으니, 이렇게 큰 영광이요 아름다운 광경들을 맞게 해 주셨으니 이제 더할 나위없이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밤도 세 자매를 모시고 불교대학으로 가렵니. 매주 목요일 밤이면 공부하러 가는 날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 세 자매 부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생활은 활력이 넘치게 됐습니. 아이들은 불기 2548년 초파일날에는 화계사 어린이 목탁반에서 동대문 운동장에 경연대회 나간다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렇게 추운데도 세 자매 부처님은 새벽에 일어나 3km를 걸어 화계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

킹레이 수행일기 <하>

실상관법은 본질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본질에 이르는 방법이었으며, 'Why(이유)'가 아니라 'How(방법)'의 세계였다. 실상관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수행자 자신의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그것은 지적인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성주공공(成住空空)하는 자연과 나의 성품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최명수 서울제천정보통신과장

내 경험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실상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 되는 경우보다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상관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간의 대화에서 실상관을 하면서 판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에 실상관을 하고 있을 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왜냐하면 성주공공하고 생주이멸하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

대사의 <관심론>등의 강설은 나의 육친 경계를 뛰어넘는 세척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조사어록은 시대에 관계 없이 수행자의 마음의 거울로 삼고 나를 비추어보고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 나는 도반들과 함께하는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가정생활에서는 자녀와 배우자를 대할 때 같이 더불어 살아가...

직장·가정서 꾸준한 '실상관' 수행
편견 버리니 만물 아름답게 보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무실에서 세면장에 갈 때 발걸음을 관하고, 세면장에서 물로 손을 씻는 행을 관하고, 전기 드라이기로 손을 말리는 행을 관하는 등 의도적으로 실상관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출·퇴근시에도 옆사람의 목소리와 열차의 각종 소리를 관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소리와 느낌을 관하는 등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상대로 실상관을 하게 되면 이슬에 옷이 서서히 젖듯이 내 일상생활을 관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 서서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나 마주 대하는 사람은 물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새롭고 신기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는 도반으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맞팔이를 하는 나로서는 종종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괜히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수행을 지어간 이후 나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됨을 보고 나 자신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는 중간간부로서 직원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묵묵히 관할 수 있는 실상관법을 통해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바로 수행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다.

매주 선원 법회 때 시행하는 20분간의 좌선 실수는 호흡을 단점으로 떨어뜨려 즉시 입정에 들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선정을 일상화시킬 수 있었다. 선지식의 인도가 있는 바른 호흡은 혼자서는 여간 해서 선정에 들 수 없는 참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제는 이 세상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다지 생각 없이 아니고 다 인연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대하게 됨에 따라 우주만물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다가왔다.

우곡선원과 인연 맺어진 이후 대주해 해 전사의 <돈오입도요문론>과 달마대사의 <혈맥론(血脈論)>과 <무심론>, 신수...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연에 의한 소중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고 발원하는 이 기쁜 마음이 우주와 직접 연결된 것임을 온 몸으로 느끼며 수행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Chanduk Yondung (찬덕연등) featuring various lanterns like palm, lotus, and moon. Text includes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and '찬덕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